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제37호 2021. 11. 424~441쪽
10. 33639/ptc. 2021. 37. 018

한·중 일상 인사말의 언어문화적 연구

李楠*·韩容洙**

< 목 차 >

1. 머리말
2. 한·중 만남의 상황분석
3. 한·중 헤어짐의 상황분석
4. 한국어와 중국어 인사말에 나타난 문화적 요인
5. 맺음말

【요약문】 인사말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내려온 사회적 약속의 일종으로 어느 민족의 언어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 일상의 인사말 중 만날 때와 헤어질 때의 인사말을 대상으로 이들의 표현 내용과 표현 방식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인사말에 담겨있는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로서 인사말에 공통적인 요소가 많다. 만날 때 알고 지내는 상대에게 수행하는 행위나 근황 등을 물음으로써 관심을 보이며, 초면인 상대에게 경의 등 예의를 표함으로써 친교 관계를 엮는 것이다. 또한 헤어질 때 상대에게 당부함으로써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행위를 표현함으로써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말은 언어생활에 일찍부터 뿌리박힌 문화적 요소로서 각 언어마다 특유한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식사를 같이 하자는 한국어 인사말은 중국어에 비해 음식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의 성격이 강하다. 이 외에 중국어는 호칭어만을 사용함으로써 만남의 인사로 하는데 한국어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주제어】 인사말, 한국어, 중국어, 언어문화, 문화적 요인

* 제1저자: 李楠 (中国 山东理工大学 外国语学院 讲师)
** 교신저자: 韩容洙 (东国大学–首尔 中语中文学科 教授)

www.kci.go.kr

1. 머리말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며, 또한 문화는 언어의 일부분이다.[1] 즉 언어와 문화는 밀접하게 얽혀 있어 어느 것이든 그 중요성을 잃지 않으면서 둘은 떼어낼 수 없다. 언어에 담긴 문화를 파악한다면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일반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 형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인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자주 접하게 된다. 인사말은 단순히 대화의 시작과 끝을 꾸미는 기능 외에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는 언어 요소이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으므로 두 나라 인사말에는 비슷한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인사말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 내려온 사회적 약속으로 두 나라 언어나 문화에 특유한 것이 있다.

먼저 한국어에서 '인사(人事)'의 해석을 보자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① 인사:
ㄱ.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표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ㄴ.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이름을 통하여 자기를 소개함.
ㄷ. 입은 은혜를 갚거나 치하할 일 따위에 대하여 예의를 차림.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인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인사말이다.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인사말과 일대일로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대체로 '招呼语', '寒暄语', '问候语' 등 표현으로 한국어 인사말에 해당되는 개념을 나타낸다. 이들에 대한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서의 해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www.kci.go.kr

1) 윤여탁,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2011, 167쪽.

② 招呼：

ㄱ. (用语言、手势或其他方式)呼唤。(말이나 손동작 또는 다른 방식으로 부름을 나타냄)

ㄴ. 与语言或动作等致意。(말이나 행동으로 예의를 표함)

ㄷ. 照料、关照。(돌보다, 보살피다)

ㄹ. 接待, 应接。(접대하다, 맞이하다)

③ 寒暄：见面时谈天气、近况等日常话题的应酬话。(만날 때 날씨, 근황 등 일상생활에 관한 화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④ 问候：问好、问安。(안부를 묻거나 문안하다)

인사와 관련하여 한·중 사전적 정의의 공통적인 부분은 인사가 사람간의 사교적이며 의례적인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이른바 인사말을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안녕을 빌거나 안부를 묻는 말, 또는 기타 격식을 차려야 할 일 등에 예의로서 하는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인사말 각각에 관한 논의는 언어학적 또는 언어 교육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황병순(1999)은 인사말을 공경의 뜻을 나타내거나 안부를 묻기 위해 하는 말이나 처음 보는 사람 간에 소개하며 하는 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한국어 인사말을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상황에서 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문금현(2008)은 한국어 교사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교재분석을 통해 한국어 인사 표현의 교육 현황을 파악한 다음 교육용 한국어 인사 표현과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김미령(2012)은 인사 상황에서 실현되는 한국어 '인사화행'의 개념 및 특성을 살피고 인사화행의 성격에 관여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인사화행의 하위유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어 인사말의 사용 양상 및 특징을 밝혔다. 郭攀(2003)은 중국어 인사말을 일반적이고 예의적인 표현, 상대의 신상이나 한 일 등에 대해 묻는 표현,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관심을 보여주는 표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인사말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曲卫国·陈流芳(2001)은 영어 'greeting'과 관련되는 중국어 표현으로 '招呼', '问候', '寒暄'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중 '招呼'를 중심의미로 한정하고 이들의 언어 형식, 사용상의 제한성 등을 살펴봤다. 송화연(2007)은 중국 사람이 만날 때의 인사말을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적인 경우로 나

www.kci.go.kr

누고 각기 이에 상응하는 형식에 따라 하위분류를 하였다. 일반적인 경우에 진술형식과 의문형식을 다루며 특수한 경우를 호칭 인사말과 동작 확인 인사말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 중국어 호칭에 담겨 있는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중국어 인사말을 다루는 논의는 시간별, 상황별로 나누어 비교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전룡화(2012), 주원원(2013), 주홍나(2020)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 인사말의 의미적 대응 관계, 언어행위, 어휘적·문법적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 인사말을 다루는 방식에는 각각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문화적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사말의 종류에 대해 학자에 따라 여러 다른 주장이 있는데 황병순(1999)에서 언급했듯이 인사말을 굳이 시간별, 장소별로 분류할 필요가 없으며 일상의 인사말과 특정 상황에서의 인사말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2)]

따라서 본 연구는 황병순(1999)의 분류를 따르며 한국어와 중국어 일상 인사말 중 만날 때(소개 인사 포함)와 헤어질 때의 인사를 중심으로 살피고 이와 같은 인사말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3)] 밝히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사말에 담겨 있는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인사말의 문화적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2. 한·중 만남의 상황분석

1) 상대의 상황 표현

상대에게 관심을 드러내는 내용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아래와 같이 대개 물음

2) 황병순(1999:11-13)에서는 「표준 화법 해설」(국립국어연구원, 1992)에 실린 인사말의 분류를 지적하였으며 아침·저녁으로 하는 인사 표현도 만날 때 하는 것과 헤어질 때 하는 것이 있으므로 굳이 이들을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장소에 관계없이 같은 인사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소에 따라 기술할 필요도 없다. 이에 그는 인사말을 일상적 인사말과 특정 상황의 인사말로 분류하였는데 다시 일상의 인사말을 만날 때(소개 인사 포함)와 헤어질 때의 인사말로 나누고 특정 상황의 인사말을 문병·문상 인사, 문안 인사, 축하 인사(결혼, 출산, 생일, 입학, 취직, 회갑, 정년 퇴임 등), 새해의 인사로 하위분류하였다.

3) 서정수(1998:13-14)에서는 전형적인 인사말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인사 표현에는 그 나라 사람의 생활 감정과 인간적 유대 관계를 드러내는 언어 행위가 담겨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형화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사말이다.

형식으로 되어 있다.

(1) 상대가 한 일이나 하는 일, 할 일에 묻는 표현

⑤ ㄱ.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ㄴ. 어쩐 일이세요? /출근하십니까? /나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ㄷ. 왔어요? /일찍 오셨어요?
ㄹ.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잤어요? /잘 잤어?
⑥ ㄱ. 吃饭了吗？/吃了吗？[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ㄴ. 您(你)怎么在这儿？(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야?)/上班啊？(출근하십니까? /출근해?)/出去啊？(나가십니까? /나가?)/去哪啊？(어디 가십까? /어디 가?)
ㄷ. 来了？(왔어요?)/来的挺早啊？(일찍 왔어요?)

예⑤, ⑥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 간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인사말이다. 만나는 시간에 상대가 하고 있는 일이나, 한 일, 또는 장차 할 일에 관해 물어 자신이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는 인사말이다.

한국과 중국은 공통적으로 식사 시간 전후에 만나면 상대방에게 식사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에는 예⑤ㄱ과 같이 '밥 먹었니? / 식사하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은 먹었어요(드셨어요)? / 진지 잡수셨어요? ', 중국어에는 예⑥ㄱ처럼 '吃饭了吗？/吃了吗？ (식사하셨어요? / 밥 먹었어(요)?)'라 하고 안 먹었으면 함께 먹자는 뜻일 수도 있고 정말로 식사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형식적인 인사치레인 경우가 많다. 밥을 먹었는지의 여부를 실제로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안부 또는 관심의 표현으로 하는 일종의 빈말 인사표현인 것이다.[4)]

또 거리에서 만날 때 예⑤ㄴ과 예⑥ㄴ처럼 서로 외출하는 의도나 목적지를 묻는 경우가 있다. 목적지를 묻는 경우에 사용되는 한국어 인사말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어디 가? '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去哪啊'이다. 이는 진짜 상

4) 문금현(2009:66)에 의하면 '빈말 인사표현'이란 주로 의례적인 인사치레 표현이나 겸손을 드러내는 인사 표현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www.kci.go.kr

대방의 목적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일 수 있지만 예의를 갖춘 인사표현일 경우가 많다. 외출하는 의도를 묻는 경우에 어떤 장소에서는 한국어에 '웬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 중국어에 '您 (你) 怎么在这儿?'가 있다. 또 시간과 상황으로 상대방의 외출 목적을 대략 추측하여 확인하는 인사말이 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직장인 이웃을 만나는 경우 한국어에 '출근하십니까? ', 중국어에 '上班啊?' 등으로 인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나가십니까? ', '出去啊?'라 하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의미로 매일 만나는 동료나 동창들끼리 쓰는 인사말로 '왔어요? /来了?', '일찍 왔어요? /早来了?' 등이 있다. 이는 늦게 온 사람이 일찍 온 사람에게 의문형으로 하는 것인데 상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는 인사말이다.

여기에서 다르게 보이는 것은 예⑤ㄹ과 같이 한국에서 이웃 사람에게 아침인사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5] 중국에서 가족에게 아침 인사로 가능하나 이웃사람에게는 ' (您) 早/早上好(좋은 아침입니다)'로 대신한다.

(2) 상대의 근황(현황)에 관한 표현

⑦ ㄱ.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니? /잘 있었니?
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⑧ ㄱ. (您)最近好吗? (잘 지내셨습니까? /잘 있었니?)/最近过得怎么样?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지냅니까?)
ㄴ. 你(您)好 (안녕하십니까? /안녕?)
ㄷ. 早上好/中午好/晚上好/(아침, 점심, 저녁의 안녕 인사)

예⑦ㄱ 한국어 '잘 지내셨습니까? ', '어떻게 지내니? ', '잘 있었니? ', 예⑧ㄱ 중국어 '(您)最近好吗? (잘 지내셨습니까? / 잘 있었니?)', '最近过得怎么样?(어떻게 지내니?)'는 매일 만나는 상대와 주고받는 인사말이 아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 상대방의 근황에 대해 알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는 인사말이다.

www.kci.go.kr

5) 정민영, 『현대인의 언어 예절』, 2016, 159쪽.

예⑦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은 상대의 근황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지만 매일 만나는 상대에게도 사용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는 '안(安 편안할 안)'과 '녕(寧 편안할 녕)'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전하고 태평한 것을 일컫는 말로서 한국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인사말이다. 박인기·박창균(2014:204)에서 옛날 '보릿고개'라 하여 봄에 양식이 부족하여 수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굶어 죽었는데, 이 때문에 아침에 만나면 '별일 없느냐? ' '무사하냐'는 뜻으로 '안녕하시냐'라고 인사를 했던 것이 그 기원이라고 전한다.

흔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를 예⑧ㄴ중국어 '你 (您) 好 ! '로 대응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 표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한국어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 근래의 도시 생활에서 바쁜 사람들끼리 인사를 나누게 되면서 간편한 형태로 밤낮 없이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다. 하루에 두 번 이상을 만났을 때에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저 목례나 미소 등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중국어 '你(您)好 ! '는 종업원과 손님, 초면인 두 사람의 사이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지만 잘 알고 지내는 사람 간에 사용되는 인사말이 아니다. 매일 만나는 동창이나 친구에게 '你好 ! '로 인사한다면 거리감이 느껴져 어색할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가 변모함에 따라 사회적인 언어 예절도 점차 변해 가는 것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직장에서 동료들 간의 인사 중에 '좋은 아침입니다'와 같은 것은 한국식 인사가 아니다. 중국어 아침 인사로 ‘早上好’하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영어권 인사 중 'Good morning'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표현이다. 하지만 중국어에 아침, 점심, 저녁의 안녕 인사로 예⑧ㄷ처럼 ‘早上好/中午好/晚上好’가 있는데 한국어에 ‘안녕하세요’ 외에 아침 인사말만 있다.

2) 수행 행위에 관한 표현

⑨ ㄱ. 안녕하세요! (저는) xxx입니다/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ㄷ. 오랜만에 뵙겠습니다/오랜만입니다/오랜만이다
⑩ ㄱ. 您好 ! 我是xxx [안녕하세요! (저는) xxx입니다]/初次见面, 请多

www.kci.go.kr

矣照(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认识您很高兴(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幸会(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ㄴ. 久仰久仰/久仰大名(오래전부터 존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ㄷ. 久违了(오랜만입니다)/好久不见(오랜만입니다/오랜만이다)

어느 나라나 사람을 처음 만나서 소개하고 인사 나누는 장면은 일정한 양식이나 양태로 상당히 표준화된 인사법을 가지고 있다.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므로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가 많다. 초면인사는 바로 그러한 긴장하거나 불안한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사말을 간단하게 주고받으며 때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상대방에 대한 경의나 경모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 국제화 시대로 교류가 활발한 요즘, 소개와 인사의 화법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져 간다.[6] 한국어 '안녕하세요. (저는) xxx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가 각각 예⑩ㄱ 중국어 '您好！我是xxx.', '初次见面, 请多关照', '认识您很高兴', '幸会'와 대응된다.

예⑨ㄴ 한국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는 누군가를 소개받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하는 인사로 적절하다. 이런 인사의 말은 한국 사람들의 인사 예절이 잘 살아 있는 권장할 만한 표준 화법의 용례에 속하는 것이다. 원래는 소개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그 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말이 등장할 수도 있고 실제로 상대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듣지 않았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는 인사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이거나 또는 칭찬의 내용이라는 것으로 미리 알아듣고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것이다. 또 유머를 구사하는 것으로 '혹시 나쁜 말씀 아닌가요? ',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네요'라 하기도 한다. 중국어에 이와 비슷한 의미로 예⑩ㄴ '久仰久仰/久仰大名(오래전부터 존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옛말이 있는데 역시 현대사회에서 공식적인 인사말로 상대방에 대한 경모를 표시하는 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不敢不敢(황송스럽습니다)', '哪里哪里(천만의 말씀입니다)'라고 대답한다.

www.kci.go.kr

6) 박인기·박창균, 『다문화 교육 시대에 되짚어 보는 한국인의 말, 한국인의 문화』, 2014, 321쪽.

한국어에 오랜만에 또는 얼마 만에 만났을 때 '오랜만이다'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와 같이 거의 정형화된 인사말이 흔히 쓰인다. 이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간에 인사하는 행위의 예비조건을 표현한 인사말이다. 중국어에 '好久不见', '久违了'은 이와 대응되는 표현인 것이다.

3) 호칭에 관한 표현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가 '호칭어+인사말'의 식으로 인사를 한다. 이때 호칭어를 붙여서 인사하는 것은 더 친절하고 존경의 의미가 강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직접 호칭이나 신분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

⑪ ㄱ. 张经理(성+사장님)/院长(원장님)/张老师(성+선생님)
ㄴ. 张建国(성+이름)/建国(이름)/老张(老+성)
ㄷ. 张叔叔(성+삼촌)/奶奶(할머니)/李姐(성+언니/누나)/娜姐(이름+언니/누나)

중국어는 ⑪ㄱ '(성)+사회적 지위/직업', ⑪ㄴ '성+이름, 이름, 老+성', ⑪ㄷ '(성/이름)+친족 호칭' 과 같은 식으로 상대에 대한 호칭만을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을 봤다', '난 여기 있다'라는 뜻을 가지며 평소 만날 때의 인사말로 쓰인다. 인사를 받은 사람은 상대에 대한 호칭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예컨대, '老师(선생님)'라고 인사한 학생에게 이름을 부르는 식으로 인사말을 하는 것이 어색하다. "你好(안녕 인사)/去上课啊?(수업 들으러 가니?)"와 같이 다른 내용의 인사말을 더하여 호응한다.

이러한 인사말은 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혹은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사용한다. 다시 말해, 이런 인사말은 상향적의 성격을 띠며,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경우에 쓰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에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호칭을 직접 쓰기는 하지만 인사말로 간주하지 않는다.

www.kci.go.kr

3. 한·중 헤어짐의 상황분석

헤어질 때 하는 한국어와 중국어 인사말을 상대 상황에 관한 것과 자신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대 상황에 관한 표현

(1) 좋은 상황이 되거나 주의하기를 당부하는 표현

⑫ 안녕히 가십시오/안녕히 계십시오/잘 가/잘 있어라/조심해서 가십시오/조심히 들어가세요

⑬ 慢走(천천히 가십시오/천천히 가)/您留步, 别送了(그만 들어가십시오)/走好(잘 가십시오/잘 가)/路上注意安全(조심해 가십시오/조심해서 가)/路上小心(조심히 가십시오/조심히 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의 내용도 만날 때 하는 인사말의 내용과 같이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현한 인사말이 많다. 그러므로 한국어에 '안녕히', '잘' , 중국어에 '好(잘)'등의 말을 사용해 헤어진 이후 상대의 상황이 편하고 좋은 상황으로 전개되기를 요청형으로 당부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대에게 관심을 드러내기 위해 한국어에 '조심해', 중국어에 '慢(천천히)', '注意, 小心(조심해)' 등의 말을 사용함으로써 상대에게 주의하기를 당부하기도 한다.

2) 하던 일을 계속하기를 당부하는 표현

⑭ 재미있게 놀아라/쉬어라/일 봐라/수고해라/수고하십시오

⑮ 好好玩吧(재미있게 놀아라)/休息吧(쉬어라)/你(您)忙吧(일 봐라/일 보세요)

상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인사말에는 상대가 하고 있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니 하던 일을 계속하기를 당부한다는 내용으로 된 것도 있다. 상대의 행위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거나 재미가 있으니 자신에게 구애 받지 말고 하던 행위를 계

www.kci.go.kr

속하고, 상대의 일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소중하고 어려우니 자신에게 구애받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기를 당부하는 것이다. '수고하십시오'는 나이 든 사람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고'라는 표현에는 고생하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와 비슷한 인사말로 중국어에 '你(您)忙吧'가 있는데 자신에게 구애받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기를 당부하는 뜻을 가지는 것으로 '您'이 붙을 경우에 윗사람에게 사용 가능한 표현이다.

(2) 자신의 행위를 서술하는 표현

⑯ ㄱ. 일어나겠습니다/가겠습니다/먼저 실례하겠습니다
ㄴ. 다녀오겠습니다/다녀올게요
ㄷ. 다음에 뵙겠습니다/다음에 뵐게요
ㄹ.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해요/다음에 술 한 잔 하자
⑰ ㄱ. 我先走了(먼저 가겠습니다)/失陪了(먼저 실례하겠습니다)/
ㄴ. 我走了(가겠습니다)/我去去就回(나갔다 오겠습니다)/
ㄷ. 再见(또 뵙겠습니다/다음에 봐요)
ㄹ. 改天一起吃饭(언제 밥 한번 같이 먹어요)/下次一起吃饭(다음에 식사 같이 해요)

서술 방식으로 된 인사말에는 헤어질 때 자신이 하는 행위를 서술한 내용으로 된 인사말이 있다. 이러한 인사말은 상대를 중시하는 인사말 규범에 어긋나는 듯하다. 상대에게 자신의 행위를 서술한다는 것은 상대를 경시한 듯이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비록 행위에 대한 서술이긴 하나 상대의 행위를 전적으로 상대에게 맡김을 뜻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상대에게 예를 갖춘 표현이 된다.

모이는 자리에서 먼저 떠나는 경우에 한국에서 ⑯ㄱ처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중국에서 ⑰ㄱ과 같이 '我先走了(먼저 가겠습니다)'라고 인사한다. 이때 한국어 '먼저 실례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나이 많은 사람에게 쓸 수 있지만 아주 윗사람에게는 '죄송합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를 얹고 나서

www.kci.go.kr

'먼저 실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7] 비슷한 상황에서 중국어에서 상황을 설명한 뒤에 '失陪了(먼저 실례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⑯ㄱ 한국어 '다녀오겠습니다'는 출발지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사용하는 작별 인사말이다. 중국어 '我去去就回(나갔다 오겠습니다)'가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 '다녀오겠습니다'가 가족 구성원끼리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자녀가 학교 가기 전에 부모에게 하는 '다녀오겠습니다' 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작별 인사다. 같은 상황에서 중국에서 '我走了(저 가겠습니다)'라 표현을 한다. 중국어 '我走了'은 출발지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와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이다.

자신의 행위를 서술 형식으로 표현한 인사말에는 헤어진 후에 다시 만나고 싶음을 서술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표현이 인사말로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표현이 상대와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라는 내용, 즉 친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학교나 직장에서 흔히 쓰이는 한국어 '또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중국어 '再见, 明天见, 下周见' 등이 대표적인 인사말이다.

이러한 인사말은 서술 형식으로 된 것만 아니라 요청 형식으로 된 것도 있다. 상대가 윗사람이면 요청 형식을 잘 사용하지 않으나 상대가 동년배나 아랫사람이면 요청 형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에 해당하는 인사표현으로 한국어 '언제 한번 밥 같이 먹어요/ 다음에 술 한 잔 해요', 중국어 '改天一起吃饭(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해요)'이 있다. 이는 식사를 같이 하자는 말이기는 하나,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젠가 하자는 것이다.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어요.'라는 제의에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한다는 심리적 맥락이 있는데 일방적인 호의의 표출이기도 하다.

4. 한국어와 중국어 인사말에 나타난 문화적 요인

본 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인사말의 내용을 통하여 엿볼 수 있는 문화적

www.kci.go.kr

7) 정민영, 『현대인의 언어 예절』, 2016, 162쪽.

요인을 친교(親交)에 관한 것, 정(情)에 대한 것, 경애(敬爱)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1) 친교(親交)에 관한 것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인이나 중국인 일상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식사 여부를 묻는 것이 많다. 식사 시간에 상대를 만나면 '안녕'의 의미로 이와 같은 인사말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와 같은 표현은 음식이나 밥을 통해서 관심을 나타내는 상투적인 인사말로 쓰인다. 박인기·박창균(2014:205)은 한국 문화에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관계의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밥 인사말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 및 상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杨月蓉(1993:45)에서는 중국어 '吃了没有'가 친숙한 사람 또는 자주 만나는 사람 간의 인사말로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알고 있지만 오랜만에 만난 사람 또는 친숙하지 않은 상대에게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에는 밥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 밥 인사로 친화감을 나타내는 언어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상대의 근황이나 현황을 물어서 상대를 편하게 배려하는 것도 친근감을 나타내면서 대화를 부드럽게 이끄는 역할을 한다.

2) 정(情)에 대한 것

첫 만남에서 호감을 전하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와 '久仰久仰', 헤어지는 자리에서 하는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자'와 '改天一起吃饭' 등 인사말은 두 나라 사람의 정이 담긴 표현이다. 하지만 이들에 숨겨져 있는 문화적 자질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와 '久仰久仰' 모두가 상당히 공식적인 인사말의 범주에 속한다. 이들은 상대에 대한 호감과 인정을 내비치는 말이다. 즉 상대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마치 오래 사귀어 온 친구와 같은 느낌을 알려주는 의미이다. 또한 상대에 관한 말씀들이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좋은 말씀'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는 누군가의 소개를

www.kci.go.kr

받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인사말이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그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사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화 장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 즉 인사하는 나, 인사 받는 상대, 그 상대를 나에게 소개해 준 사람의 연대감을 높이려는 것으로 소통 작용을 한다. 하지만 '久仰久仰'이라는 표현 자체에 상대에 대한 말씀을 그전에 많이 들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나 상대를 소개해 준 사람의 역할이 나와 있지 않다고 본다.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와 '改天一起吃饭'의 경우, 음식을 통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정을 표현하는 말이다. 문금현(2009)의 연구에 따르면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언제 밥 한번 먹자' 같은 표현은 한국인들이 친구와 헤어질 때 흔히 하는 인사말로 반드시 나중에 밥을 함께 먹자는 것보다는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하면서 실행에 대한 의무감을 갖지 않는 빈말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금현(200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下次一起吃饭' 등 표현을 사용하면 빈말이 아니라고 한다.

3) 경애(敬爱)에 대한 것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분별하는 언어문화가 있다. 한국어의 경우,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하는 인사말이 달라지며, '오랜만입니다./오랜만이야.'와 같이 종결어미에, '사장님, 어디 가세요? /철수야, 어디 가'와 같이 호칭 또는 선어말어미 '-시-'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잤어? '와 같이 어휘에 의해 달리 표현된다. 이에 비해, 중국어 인사말은 '您, 久仰' 등 어휘와 '奶奶, 老师' 등 호칭으로 윗사람에게 경의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상대를 만나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을 부르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는 비교적 독특한 중국어 인사말이 있다. 이는 중국 사람이 어린이에게 예절을 가르칠 때 상대 어른에 대한 호칭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에서 그 반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호칭을 부르는 행위에서만 윗사람에 대한 경애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www.kci.go.kr

5. 맺음말

지금까지 한·중 인사말의 표현 내용과 표현 형식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에 담겨 있는 문화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인사는 어떤 사람과 만나거나 헤어질 때 말이나 행동으로 예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문화다. 인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고리이며 삶을 윤활하게 하는 촉매제다[8]. 한국과 중국은 모두 동일한 유교문화권의 나라로서 인사말에 공통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 만날 때 알고 지내는 상대에게 수행하는 행위나 근황 등을 물음으로써 관심을 보이는 것이 소중하며 초면인 상대에게 경의나 경모를 표함으로써 친교 관계를 엮는 것이다. 헤어질 때 상대에게 당부함으로써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행위를 서술함으로써 친교 관계를 엮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말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내려온 사회적인 약속의 일종으로 각 언어나 문화마다 특유한 방식이 있다. 중국어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따른 인사말이 따로 있지만, 한국어 인사는 그렇지 않다. 식사를 같이 하자는 한국어 인사말은 중국어에 비해 음식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빈말의 성격이 강하다. 이 외에 중국어는 호칭어만을 사용함으로써 만남의 인사로 하는데 한국어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www.kci.go.kr

8) 박인기·박창균, 『다문화 교육 시대에 되짚어 보는 한국인의 말, 한국인의 문화』, 2014, 203쪽.

참고문헌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김미령, 「우리말 인사화행 연구」, 『우리말연구』 제31집, 우리말학회, 2012.
김보인, 「한·일 의례성 인사말의 사회언어학적연구」, 『일본문화학보』 제32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7.
문금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인사 표현의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제80집, 새국어교육학회, 2008.
_____, 「한국어 빈말 인사 표현의 사용 양상과 특징」, 『언어와 문화』 제5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
박광규, 「한국인의 인사표현 연구-일상의 인사표현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제19권 3호, 한국언어과학회, 2012.
박인기·박창균, 『다문화 교육 시대에 되짚어 보는 한국인의 말, 한국인의 문화』, 학지사, 2014.
서정수, 「한국어, 일본어, 영어 및 중국어의 인사말 비교 연구」, 『비교한국학』 제4집, 국제비교한국학회, 1998.
송화연, 「중국어 인사말과 호칭의 문화적 의미 분석」, 『중국학연구』 제40집, 중국학연구회, 2007.
윤여탁,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언어와 문화』 제7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1.
전룡화, 「중한 두 나라 인사말의 대응 관계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20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2.
정민영, 『현대인의 언어 예절』, 굴누림, 2016.
조은주,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의 인사 화행 연구」, 『이중언어학』 제60호, 이중언어학회, 2015.
황병순, 「국어 인사말 연구」, 『배달말』 제25집, 배달말학회, 1999.
曲卫国·陈流芳, 「汉语招呼分析」,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与社会科学版)』 第33卷 第3期, 2001.
郭攀, 「问候语说略」, 『语言文字应用』 2003年 第1期, 2003.
孟建安, 「招呼语的修辞内涵」, 『修辞学习』 1999年 第5期, 1999.
杨月蓉, 「从“吃了没有”看招呼语的适用性」, 『修辞学习』 1993年 第4期, 1993.
王世生, 「“你好”是汉语里的问候语吗？」, 『语文建设』 1995年 第1期, 1995.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商务印书馆, 2016.
肖莉, 「汉语的言语礼节特点」, 『修辞学习』 1998年 第2期, 1998.
胡明扬, 「问候语的文化心理背景」, 『世界汉语教学』 1987年 第2期, 1987.

www.kci.go.kr

Abstract

A Linguistic and Cultural Study of Daily Greetings in Korea and China

Li, Nan*·Han, Yong Su**

Greetings are a long-term social agreement, which exists in the language of any nation. This study takes the greetings when meeting and breaking up in Korean and Chinese daily greetings as the object, grasps their expression contents and ways, and then analyzes the cultural factors contained in these greetings. As countries in the same Confucian cultural circle, South Korea and China have many common elements in greetings. Show concern by asking about the behavior or current situation of the other party you know when you meet, and show respect or admiration to the other party you meet for the first time, so as to establish an intimate relationship. In addition, when breaking up, you can show concern, express your behavior and express your mind by instructing the other party. However, greetings, as a cultural factor rooted in language life very early, each language has its own unique things. The most representative is the Korean greeting to eat together. Compared with Chinese, the empty talk character of expressing the mood of deepening the relationship through diet is stronger. In addition, Chinese only uses address forms as greetings, but Korean is not.

【Key words】 greetings, Chinese, Korean, linguistic culture, cultural factor

* Lecture, School of foreign languages, Shan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 Professor,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Dongguk University.
*** 논문접수일: 2021. 10. 19. 논문심사기간: 2021. 11. 03. ~11. 18. 게재확정일: 2021. 11. 24.